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심영민 부장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기쁨의 신앙 (요: 2: 1-11)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내 죄 사함 받고서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예배로 표현되는 믿음” (창세기 12:1-8)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7 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 차례 제단을 쌓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의 삶속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은 지금 이루어진 축복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이루어질 축복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낙심되고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다시 들었을 때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고, 섬길 수 없는 상황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 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후에 자신이 지낼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힘과 담대함,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 얻으시는 헤이워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한국방문** - 한국 방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야외 예배** - 6월 26일 주일예배는 야외 예배로 (11AM) 모입니 장소 : Weekes Park / 27182 Patrick Ave, Hayward 94544
4. **성찬식** - 7월 3일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행사 및 모임

6 월	야외예배	6 월 26 일(주일)
7 월	새가족환영회	날짜 미정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6/19	6/26	7/03	7/10
대표기도	심영민	김영란	유경주	조정욱
헌화성도	오양순	여진화	김제니퍼	
봉사당번	동트는목장	야외예배	따스한목장	둥지목장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510.00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믿음목장	김정숙	510. 414-8198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동트는목장	홍지원	650. 554-9993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아버지에게 힘을

이번 주일이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대부분 아버지 날은 어머니 날에 비해 신경쓰지 않고 넘어 간다고 (?) 불평하는 남자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느분의 아내는 365 일 중에 364 일이 아버지날처럼 지내고 일년에 단 하루 어머니 날에 조금 대접 받는 것이 이상한거냐는 반박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

사실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이 큼니다. 하지만 남자로, 아버지로 산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흥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의 마음에는 늘 안개 같은 아픔이 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남자, 강해지고 싶어 하는 터프한 사나이들도 때로는 혼자 조용한 데 가서 한없이 울고 싶은 순간이 있다. 무시당하기 싫어서 죽어라고 뛰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 졌을 때는 다시 질 것이 두렵고, 이겼을 때에는 계속 이기지 못할까 봐 두렵다. 누르는 선배보다 치고 올라오는 후배가 더 무섭다. 내 능력이 부족해 아내와 자식들을 남 앞에서 비참하게 만들까 봐 직장에서 어떤 수모도 참고 참는다. 말로는 민족의 운명과 대의를 논하면서, 현실에서는 식사 값 조금 아끼기 위해 별벌 떠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하다. 그러다 속병이 들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남을 이겼는데도, 웬지 모를 양심의 소리가 힘들게 한다. 그래서 며칠씩 연락을 끊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탈출하기도 하고, 흘러간 팝송을 들으며 멍하니 오래도록 창밖을 내다보기도 한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거나 속은 한없이 여린 사람, 그가 바로 남자다.”

마지막 줄에 쓰인 “겉으로는 강해 보이거나 속은 한없이 여린 사람, 그가 바로 남자다” 라는 말이 웬지 동감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은 남들이 모르게 안고 가는 고민들과 눈물,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인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움추러 들 때가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한마디의 비난이나 비판의 말에 기도 죽습니다.

오늘 아버지주일 입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들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옆에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 아버지, 남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칭찬과 인정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별로 반응하지 않고 웬 소리냐고 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하고 살아갈 힘과 더 잘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칭찬, 인정, 격려입니다. 웬지 제 자신이 더 받고 싶은 것을 칼럼으로 쓴 것 같아 쑥스럽지만 어깨를 피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 시 <i>1:00 P.M.</i>	유년부실 <i>Youth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목장모임 <i>House Church Meeting</i>	매 주 <i>Weekly</i>	목장별 각가정 <i>House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i>Edison & Danielle</i>	408-807-7962	edisontung@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